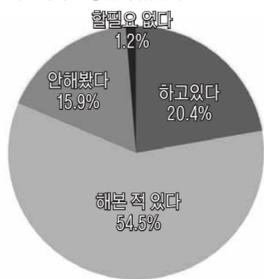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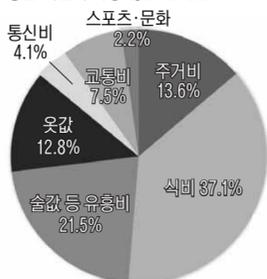
짓눌리는 젊음...알바 하루 6시간·취업자중 계약직 58%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가



패기와 의욕으로 충만해야 할 젊음이 짓눌리고 있다. 광주청년신문의 이번 설문 조사에서 다수 젊은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아르바이트에 학업시간을 희생하고 있으며 취업한 젊은이들도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이직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경제=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광주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1.4%

■용돈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달했다. 가계로 치면 엔겔계수가 매우 높은 셈이다. '술값등 유흥비'라고 답한 사람은 21.5%인 57명, '주거비'라고 답한 사람은 13.6%인 36명, '웃값'이라고 답한 사람은 12.8%인 34명으로 두항목이 비슷했다. 이밖에는 교통비는 7.5%, 통신비는 4.1%였다. 삶의 질과 관련된 '레저등 문화비'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응답자중 단 6명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비

용돈 지출항목 '식비' 37% 최다

"술·담배 모두 많이 한다" 18.9%

취업 위해 하루 2시간 이상씩 공부

취업자 4대보험 가입 절반 밑돌아

인 54명, '해본 경험이 있다'는 54.5%인 144명이었다. 둘을 합치면 85%가 넘는 답변이다. '안해봤다'는 15.9%인 42명, '할 필요가 없다'는 8.3%인 22명에 그쳤다.

아르바이트 직종도 단순노동이 대부분이었다. 28.0%인 74명이 식당 술집 서빙 일로 가장 많았고, 11.7%인 31명이 편의점, 7.1%인 19명이 식당 술집 주방일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택배, 청소, 주차요원 순이었고 과외지도는 4.5%에 그쳤다.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하루 6시간 이하'가 34%인 90명, '6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9.9%나 됐다. '하루4시간 이하'는 8.7%인 23명, '2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수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돈의 액수는 '월 70만원 이하'가 22.7%(60명)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가 18.9%(50명) 두 번째, '100만원 이하'가 15.5%(41명)였다. '100만원 이상'은 9.4%, '30만원 이하'는 6.8%(18명)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종합하자면 광주지역 청년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있으며 아르바이트 노동시간은 비교적 장시간이 6시간 이상, 월 수입은 60~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한달 용돈액수를 묻는 결과 '50만원 이하'가 34.0%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이하'가 32.1%, '20만원 이하'는 12.1%, '100만원 이하'는 13.2%였다.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7.1%였다.

용돈중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을 묻는 결과 '식비'라고 응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려 98명으로 응답자의 37.1%에

달했다. 가계로 치면 엔겔계수가 매우 높은 셈이다. '술값등 유흥비'라고 답한 사람은 21.5%인 57명, '주거비'라고 답한 사람은 13.6%인 36명, '웃값'이라고 답한 사람은 12.8%인 34명으로 두항목이 비슷했다. 이밖에는 교통비는 7.5%, 통신비는 4.1%였다. 삶의 질과 관련된 '레저등 문화비'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응답자중 단 6명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비

조달 방법을 묻는 결과 '부모님돈과 내가 번 돈을 합해서'가 40.0%였으며 '부모님이 대준다'가 28.5%, '학자금 용자'는 17.1%, '장학금으로 모두 해결'은 14.2%였다. <건강=청년들은 건강했다.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답한 사람은 43.9%인 116명, '건강하다'는 28.0%인 74명이었다. '매우건강'이라고 답한 사람도 18.5%인 49명이었다. 이들을 합하면 90%가 넘는다. '가벼운 질환 있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8.3%, '중한 질환 있음'은 단 3명이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질문은 다양하게 나왔고 '술만 한다'가 32.9%인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술 담배 모두 약간 한다'와 '술 담배 아무것도 안한다'가 각각 20.4%인 54명씩이었다. '술 담배 모두 많이 한다'도 18.9%인 50명이었으며 '안피우고 안마신다'가 10.6%인 28명이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자(135명)는 '술 담배 모두 많이 한다'가 33.3%인 45명, '술 담배 모두 약간 한다'가 31.1%인 42명, '술만 한다'가 17.7%인 24명, '아무것도 안한다'와 '담배만 피운다'가 각각 8.8%인 12명씩이었다.

여자(129명)의 경우 '술만 마신다'가 48.8%인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술 담배 모두 약간 한다'가 9.3%인 12명, '담배만 피운다'는 4.6%인 6명이었다. '술 담배 모두 많이 한다'는 3.8%인 5명, '술 담배 아무것도 안한다'는 응답은 32.5%인 42명이었다. 여성흡연비율이 17.8%수준이어서 한국 평균 여성흡연률 5.1%보다는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자들은=취업중인 100명의 남녀에게 가장 큰 고민을 묻는 결과 1위는 돈문



한 취업설명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의 진지한 표정. <광주일보 제공>

제, 2위는 직장내 업무, 3위는 외모, 4위는 이성문제, 5위는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들일수록 돈문제 고민 비율이 높았으며 이성문제에 대한 비율은 남성이 더 많았다. 기존 취업여성의 경우 육아문제가 돈문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취업하기 위해 하루 몇시간씩 공부를 했느냐는 질문에 '2시간 안팎'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3시간이상 17명, 4시간 이상 16명, 5시간 이상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후 취업까지 걸린 시간을 묻는 결과 '졸업과 동시'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가 26명, 1년이 20명, 2년이 8명, 3년 1명, 4년 3명, 5년은 1명이었다. 취업한 청년들은 대개 졸업 6개월 이내에 직장을 잡는 양상을 보여준다.

취업자 100명의 고용형태에 대한 질문에 '정규직'은 37명, '풀타임 계약직'은 22명, '파트타임 계약직'은 27명, '풀타임 일용직'은 1명, '부정기적 일용직'은 8명, '창입'은 5명이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58%에 이를 정도로 광주지역 취업청년들의 직업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가입했다'가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부분적으로 가입 되어있다'가 37명, '하나도 가입 안되어있다'도 14명이나 됐다. 취업자들의 직장 영세성을 말해준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원하던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가

42명, '아니다'가 22명, '전혀 아니다'가 10명으로 나타나, 자신의 이상과는 다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매우 그렇다'는 7명, '그렇다'는 19명에 그쳤다.

자신의 전공과 연관된 일자리를 잡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심각했다. '전공과 무관하다'가 45명,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관련있다'는 27명, '관련있다'는 28명이었다.

'직장을 옮길 생각이 있나?'라고 묻는 결과 '매우 그렇다' 16명, '그렇다' 13명, '모르겠다' 38명, '아니다' 29명 '평생직장으로 여긴다' 5명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고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한 청년들이 다수이다 보니 약 30%의 취업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현상이다.

<훈인 연령=응답자 중 미혼자 225명을 대상으로 '결혼 한다면 몇 살에 할 건가요?'를 물었다. 먼저 남자의 경우 대학생들은 평균 31.4세, 졸업후 미취업자들은 34.2세, 취업자들은 32.7세로 응답했다. 이를 다시 평균하면 32.7세였다.

여자의 경우 대학생들은 29.9세, 미취업자들은 30.5세, 취업자들은 29.5세라고 답했다. 평균 29.9세. 남녀 공히 대학생 시절에는 적령기에 결혼할 것을 마음먹었다가 취업난에 허덕이며 결혼을 미루는 현상을 보여준다.

<유재원기자>

설문조사 어떻게 했다

광주청년조례가 정한 청년의 정의에 따라 광주거주 만 19세~39세 남녀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학생중 15명이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면접조사방법으로 설문을 실시, 이중 264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조사는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그룹=고졸 및 대학 재학 미취업자 남35명/여40명.
- 2그룹=대학졸업후 미취업자 남35명/여35명.
- 3그룹=고졸 및 대졸 취업 미혼자 남40명/여40명
- 4그룹=고졸 및 대졸 취업 기혼자 남10명/여10명
- 5그룹=고졸 및 대졸 미취업 기혼자 남10명/여9명

이들에게는 공통질문과 그룹별 질문이 주어졌으며 26~29개 문항이 주어졌다. 마지막 문항은 '세상에 대해 하고싶은 말'을 자유롭게술도록 했으며 서술해 준 응답자는 133명이었다.

※설문에서 <2그룹-남>

이 설문은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제작하는 <광주 청년신문>의 기사 자료로 사용됩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당신의 나이는(만 나이)?
 - ①19세~25세 ②26세~30세 ③31세~35세 ④36세 ⑤~39세
- <2>최종학력은?
 - ①고졸 ②대재 ③대졸 ④대학원재 ⑤대학원졸
- <3>건강상태는?
 - ①중환 질환 있음 ②가벼운 질환 있음 ③양호 ④건강 ⑤매우 건강
- <4>술 담배는?
 - ①술 담배 모두 많이한다 ②술 담배 모두 약간한다 ③아무것도 안한다 ④술만 한다 ⑤담배만 피운다
- <5>거주형태는?
 - ①부모와 동거 ②기숙사 ③분가후 월세 ④분가후 전세 ⑤분가후 자가(배우자 명의 포함)
- <6>대한민국은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어떤가요?
 - ①아주 나쁘다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아주 좋다
- <7>광주광역시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어떤가요?
 - ①아주 나쁘다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아주 좋다
- <8>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구청이 실시하는 청년지원정책을 알고 있나요?
 - ①하나도 모른다 ②한두가지를 안다 ③여러가지를 안다 ④많이 안다 ⑤많이 알고있으며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봤다
- <9>광주시의 청년지원조례에 대해 알고 있나요?
 - ①처음 들어봤다 ②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다 ③알고 있다 ④자세히 알고 있다
- <10>광주지역에서 열린 청년 문화행사나 청년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은?
 - ①참여해본적 없고 하기도 싫다 ②안해봤지만 한번쯤 참여해보고 싶다 ③관심 없다 ④참여해본적 있다 ⑤참여해보았고 또 하고 싶다
- <11>서울시, 경기 성남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매우 부럽고 광주도 실시하면 좋겠다 ②순다면 받고 싶다 ③재정자립도 상 비현실적이다 ④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⑤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이므로 반대한다
- <12>만약 광주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면 최소한 연간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나요?
 - ①50만원 ②70만원 ③80만원 ④90만원 ⑤100만원
- <13>당신은 앞으로 어디에서 살 생각입니까?
 - ①광주에 계속 살겠다 ②도도록 광주에 살겠다 ③모르겠다 ④광주를 떠나고 싶다 ⑤절대로 광주에 살지 않겠다
- <14>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 ①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②해본적이 있다 ③안해봤다 ④할 필요가 없다
- <14-a>(14문항 ①②답변자만)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해봤나요?
 - ①식당 술집 서빙 ②식당 술집 주방일 ③편의점 점원 ④택배 ⑤주차요원 ⑥청소 ⑦과외지도 ⑧기타
- <14-b>(14문항 ①②답변자만)아르바이트 평균 노동시간은?
 - ①하루 2시간 이하 ②하루 4시간 이하 ③하루 6시간 이하 ④하루 6시간 이상
- <14-c>(14문항 ①②답변자만)아르바이트 수입은?
 - ①월 30만원 이하 ②월 50만원 이하 ③월 70만원 이하 ④100만원 이하 ⑤100만원 이상
- <15>당신의 용돈중 가장 지출이 많은 분야는?
 - ①주거비 ②식비 ③술값등 유흥비 ④웃값 ⑤통신비 ⑥교통비 ⑦스포츠, 문화비
- <16>당신의 월 저축액은?
 - ①30만원 이상 ②20만원 이상 ③10만원이상 ④없다 ⑤빚을 갚는 중이다
- <17>당신의 당면한 가장 큰 고민은?
 - ①취업 ②건강 ③외모 ④이성 문제 ⑤돈 문제 ⑥병역 문제
- <18>당신의 스펙 중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 ①출신학교 ②졸업학점 ③어학실력 ④경력 ⑤봉사활동
- <19>지금 준비중이거나 마음먹은 당신의 미래 직업은?
 - ①대기업 또는 공기업 사원 ②중소기업 사원 ③공무원 ④창업 ⑤전문직(교사 포함)
- <20>취업을 위해 당신은 하루 몇시간정도 공부를 하나요?
 - ①시간 이상 ②2시간 이상 ③3시간 이상 ④4시간 이상 ⑤5시간 이상
- <21>당신은 준비중이거나 마음먹은 당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걸로 예상하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모르겠다 ④잘 될 것 같지 않다 ⑤불가능 하다
- <22>당신은 해외취업을 할 의사가 있나요?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모르겠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 <23>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나요?
 - ①부모님이 대준다 ②부모님 돈과 내가 번 돈을 합해서 ③모두 내가 번 돈으로 ④빚 ⑤저축해둔 돈
- <24>한달 용돈은 얼마정도 쓰나요?
 - ①20만원 이하 ②30만원 이하 ③50원 이하 ④100만원 이하 ⑤100만원 이상
- <25>결혼관은?
 - ①꼭 할 것이다 ②하는게 좋겠다 ③모르겠다 ④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다 ⑤안하겠다
- <26>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할건가요? 숫자로 써주세요.
 - ()살
- <27>세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면에서 계속>

“결혼 못할 것 같다” 12.1%

광주광역시 전역 최초로 제정된 청년 조례에 대한 질문 역시 '알고 있다'가 10.6%, '자세히 알고 있다'는 0.7%에 불과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광주시의 청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청년조례에 대해 처음 듣거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의 청년 문화행사나 프로젝트의 참여 경험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안해봤지만 참여해보고 싶다'(51.8%)고 답했다. 이어 '참여해본 적 없고 하기도 싫다'(20.4%), '관심 없다'(15.9%), '참여해본 적 있다'(8.7%), '해보았고 또 하고 싶다'(3.7%) 순이다. 이같은 답변은 광주의 청년들이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에 동참하고 싶은 욕구는 강하나 홍보부족, 유인정책 부족 등으로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도도록 광주에 살겠다'(31.4%), '광주에 계속 살겠다'(9.8%)는 긍정적 답변이 41.2%였고 '떠나고 싶다'(24.9%), '절대로 광주에 살지 않겠다'(4.1%)는 부정적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

결혼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도 현실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기혼자를 뺀 미혼 청년층 225명에 대해 결혼관을 묻는 결과 '꼭 할 것이다'는 17.2%에 그쳤으며 '하는게 좋겠다'28.2%,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다' 12.1%, '안하겠다'는 9.4%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세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문항에서 한 응답자는 "헬조선 을 쫓조선으로!"라고 적었다.

<유재원 학생기자>

세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 들어보니...

반 이상이 일자리 호소...격려·다짐도

극심한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하듯, 설문조사에서 '세상에 대해 하고싶은 말'을 적은 응답자들은 반 이상이 일자리를 애 타게 원하고 있었다.

학생신분이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건 '취업중 하게 해주세요' '취업난 해결, 안되는 건가요?'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등의 답변은 133명의 응답자 중 81명에 달했다. 그밖에는 '화이팅' '우리 힘입니다' '헬조선을 쫓조선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등 스스로와 동세대 청년들을 위로하며 각오를 다지는 응답자도 20여명에 달했다.

구체적 요구를 적은 응답자들도 있었다. '알바 시급 좀 올려주세요' '면접할 때 입사지원 동기 좀 묻지 맙시다. 돈 벌고 싶어 온거 다 알잖아요' '스펙으로 사람평가

하지 마세요' '창업대출금액 좀 줄여주세요' 등 답변자의 심정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이었다.

비관적 심정을 적은 글도 10여건에 달했다. '한국을 떠나야 할 것 같다' '한국은 틀렸다'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썩었다' '너무 살기 힘들다' 등이다.

욕설을 적은 응답자들도 있어 청년들의 스트레스를 반영했다. '거지같다' '× 같은 세상' 이라고 적은 응답자들도 있었다.

시국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점을 적은 응답자들도 20여명에 달했다. '부정부패 없는 세상이 먼지입니다' '깨끗한 세상' '반칙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비리를 바로잡으면 다 풀린다' 등의 내용이었다. <유재원기자>